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1회 사랑의마당축제’가 5월 17일(토), 옐로카운티 ‘Buena Park Middle School’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4면). ©기독일보

미주기독일보

You Tube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알립니다

다음주 신문(5/30)은 휴간
입니다.

유엔 총회, 북한 인권 주제 사상 최초 ‘고위급 전체 회의’

5월 20일 뉴욕 유엔총회

유엔 총회 최초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가 5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컨센서스로 채택된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따른 것으로,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당 결의 제27항은 ‘유엔 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필레몬 양(Philemon Yang) 제79차 유엔 총회 의장 주재로 일제 브랜드 케리스(Ilze Brands Kehris)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담당 사무차장보,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브랜드 케리스 사무차장은 “OHCHR이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아카이브를 구축했고, 800건 이상의 피해자와 목격자 인터뷰 및 증거자료가 담겼다”며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접근을 거부해온 북한이 최근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와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에서 회원국 권고 사항을 일부 수용했다”며 “만약 권고 사항이 이행된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이 훨씬 악화됐다. 북한 주민들은 5년 넘게 절대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경 폐쇄와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제한, 정보 접근 차단 등이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켰다. 최근 제정된 3개 법을 통해 이

동의 자유와 노동권,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탈북 여성인 김은주·강규리 씨가 북한 인권 침해 실상과 생생한 경험을 증언했다. ‘11살의 유서’ 작가인 김은주 씨는 어머니·언니와 탈북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은주 씨는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그들은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어머니·이모와 탈북한 강규리 씨는 “저는 5살 때 할머니가 토속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시골로 추방됐다.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종교나 신념은 김정은 가문의 세습 통치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뿐”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 6면에서 계속

‘마라톤 목사’ 별명 얻은 사연

송정명 목사 ‘늘 새롭게’
출연, 간증 풀어내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이자 미주평안교회를 담임했던 송정명 목사가 기독일보의 ‘늘 새롭게’에 출연해 자신의 신앙 여정과 ‘마라톤 목사’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사연을 전했다.

송 목사는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동양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후 미주평안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며 사역을 감당해왔다.

그가 ‘마라톤 목사’라 불리게 된 계기는 바로 ‘주일 예배 사수 운동’ 때문이었다. 1986년, LA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다. 문제는 이 대회가 매년 3월 둘째 주, 곧 주일에 열리면서 LA 한인 교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었다. 당시 마라톤 경로에 포함된 지역의 도로들이 모두 통제되면서 교인들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특히 교회 버스를 이용해 예배에 참석하던 노년층 교인들이 큰 불편을 겪



송정명 목사가 기독일보의 ‘늘 새롭게’에 출연해 ‘마라톤 목사’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사연을 전했다. ©기독일보

었다. 송 목사는 “주일에 마라톤을 개최하는 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 문제에 깊이 주목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마라톤 행사는 공공 행정 차원에서 주관된 것이 아니라, 참가비를 받고 경기를 운영하는 민간 마라톤 위원회 주최의 수익성 행사였다.


토마스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 미국 ↔ 한국 ₩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리트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광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Proverbs 3:5-6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청하기 ▼
신뢰하라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2025
06.16^{Mon} - 18^{Wed}
장 소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강 사  **Del Augusta**
(Collide City Church 담임목사)
[세미나] **Jeff Bowders** (Drum Professor of Musicians Institute)
켄 정 (Head of Growth Engineering of HeyGen AI)
한인 청소년 선착순 100명
대 상 *2025년 8월 기준 6학년부터 12학년
*자제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열지 않는 한인 교회의 학생에 한함
등록기간 **2025년 5월 18일(주일) - 6월 7일(토)**
등록비 **무료**
등록문의 나성순복음교회
www.lafgc.com +1-323-913-4499 lafgced@gmail.com

한빛장로교회 “소명이 부여되면, 마른 나무가 썩난 지팡이로”

2025년 5월 18일(주일), 한빛장로교회(구경모 목사)는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구경모 목사는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썩난 지팡이처럼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구 목사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위나 주장을 통해 제사장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이며 이삭할의 아들인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다. 우리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왜 너희 둘만 제사장직을 감당하느냐라고 대적했다.”

“나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그렇게 고상한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늘 성전 기물이나 들고 다니고 닦고 나르고, 성전 기둥을 나르고, 물 떠나르고 불 피우고 소 잡고, 양 잡고, 내 몸에 피 다 묻히고, 먼지를 다 뒤집어쓰며 외곽 공사나 하고... 그러한 사역을 하다 보니,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대제사장직, 제사장직,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고상해 보였던 것이다.”



5월 18일(주일), 한빛장로교회(구경모 목사)는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게 된다. 이때에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주목할 만하다. 기도한다. 앞드려서 기도하자 그 결과로 향로에 불이 솟아오르며 250명이 모두 다 죽게 된다. 그들의 반역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그것을 보고 빨리 회개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남은 가족들이 끝까지 그 진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그들 또한 땅이 갈라져 죽게 된다.”

구 목사는, 이어서 아론의 지팡이에 난 “살구 열매”는 히브리어 샤케드(깨어 있다, 지켜보다)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하며,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며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언약케 안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썩난 지팡이의 상징

그는 언약케 안에 담긴 세 가지-돌판, 만나, 썩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돌판, 만나, 아론의 썩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증거물이다. 두 돌판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계명을 받아듣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사건을 연상한다.돌판을 모세가 들고 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던져 버린다. 그것은 그들에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 사랑이었다. 성질 나서 던진 게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대면, 율법에 의해서 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 돼 버린다. 그래서 그거를 깨버리는 것이다. 만나를 볼 때 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구나를 성찰하는 것이다. 아론의 썩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이 세가지 물건이 들어 있는 법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임직의 의미와 연결시켰다.

“하나님의 죄 없음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그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그 피 뿌림을 통해 사함을 받는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 마치 옛 언약의 속죄소에 어린양의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사장으로서 세우시기 위함이다”

안개 처럼 사라질 인생...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그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며, “마른 지팡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일시적인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런 무의미한 인생, 그게 마른 지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이 부여되면 마른 지팡이가 생명으로 썩난 지팡이가 된다”고 말했다.

임직식에서는, 김상진 장로 안상현 장로가 원로 장로로 추대되었고, 김계용, 윌리엄 유, 장남식이 장로로, 김민경, 박선우, 신형범, 이광영이 안수 집사로, 김혜인, 박성원, 임혜신, 윤은경, 유영애, 장성은이 권사로 임직했다.

김상현 목사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 딱 한 가지만 권면을 드리고자 한다. 비전으로 하나가 되면 된다. 모든 일에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세요.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매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했고, 이인규 목사(기독교일보 대표)는 “한빛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으로 LA와 열방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하했다. 주디 한 기자

“주일 예배를 위해 14년을 달렸다”

→ 1면 기사<‘마라톤 목사’ 별명....>에 이어서

참가비는 1인당 100달러에 달했고, 참가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대회 수익은 약 2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한 행사였기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다고 송 목사는 회고했다.

이에 그는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일 마라톤 유감’이라는 칼럼을 한 신문에 기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여러 교계 지도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후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마라톤 날짜 변경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송 목사는 총무 역할을 맡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협조를 구했다.

결국 2008년, LA 국제 마라톤의 일정은 만장일치로 주일에서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였다. 5월의 더운 날씨 탓에 참가자 수가 1만 2천 명으로 줄어들고, 탈진하는 참가자도 생기면서 다시 주일 개최에 대한 논의가 부활한 것.

이 때 한 은퇴한 백인 판사이자 장로가 나서서 중재안을 제안했다. 마라톤을 다시 주일에 개최하되, 코스를 조정하여 한인타운 지역은 통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의 마라톤 코스는 다저스 스타디움을 출발해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이어지는 루트로 변경되었고, 한인 교회들은 더 이상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의 별명인 ‘마라톤 목사’는 마라톤을 직접 뛴 것이 아니라, 마라톤 날짜 변경을 위해 14년 동안 ‘믿음의 마라톤’을 달렸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송 목사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처



과거 마라톤 날짜 변경 운동을 하는 송정명 목사. 언론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음 교회를 찾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가 가지고 다니던 작은 ‘족복음’ 성경 때문이었다. 그 성경이 갖고 싶었던 그는 친구의 말대로 네 번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니면 성경을 준다고 해서 교회에 첫 걸음을 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중학교 임시를 준비하며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답

선생님의 말에 주일학교 출석을 중단하였고, 이후 군대에 입대하기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중학교 임시를 준비하며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답임 선생님의 말에 주일학교 출석을 중단하였고, 이후 군대에 입대하기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다. 군 복무 중 그는 우연히 근무지 근

처의 군인 교회를 자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세례를 받았다. 이후 부산 MBC에서 성우로 근무하며 세속적인 삶을 이어가던 중, 목사였던 매형과 누나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에 마음을 돌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는 두 주간 사이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삼촌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후,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며,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59년 동안 우리 아버님이 해 놓은 게 뭐가 있는가 우리 삼촌이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할 인생 길이라 그러면 좀 더 다른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입학을 했다.” 신학교에 입학한 그는 개강 부흥회에서 김조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본격적인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했다.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6/9 (월)~10 (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교일보
(213-739-0403, 213-434-1170)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슬로, 바이블(공저)



아이티 소망학교에 뿌린 씨앗, 분명한 열매 맺을 것

소망학교 건축기금 마련 위한 연합선교 음악회, 월드쉐어 USA 주관으로 미주평안교회서 개최

아이티 소망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연합 선교 음악회가 지난 5월 18일(주일) 오후 6시 30분에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사순절 나눔의 금식 캠페인’ 종료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사순절 기간, 월드쉐어USA는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 소망학교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망인과 전쟁 고아들, 전쟁난민 사역을 지원을 위해, 하루 한끼 금식하며 그 한끼 식사 비용을 모금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나침반교회, 예은교회, 가스펠교회 더섬기는교회 LA시티교회,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예수로교회, 등 여러 교회와 무궁화합창단에서 동참하여 수리남, 도미니카, 우크라이나에서 전도축제, 성경공부, 마을을 복음화하는 데 사용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김정호 목사(가스펠교회) 특별 찬양, 광견섭 목사(예은교회, WS후원이사장) 설



아이티 소망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연합 선교 음악회가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기독일보

교, 송정명 목사(지도위원장, 성시화대표) 격려사, 최학량 목사(지도위원, 미주한인 군목회장)와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축사, 신명균 목사(연세아카데미 부원장)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견섭 목사는, “구제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며, 대학 시절 찬송가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를 작곡한 교수님께서 “한국교회가 실제 삶 속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셨다며, 그 찬송가로 설교를 대신했다.

송정명 목사는 “14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가 된다. 열악하기 그지

없던 조선 땅에 건너왔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고 병원을 세워주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며, “140여년 전에 조선 땅에 씨앗을 뿌린 그들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듯, 아이티에도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양경선 목사(홍보이사, 샘물교회)의 사회로 열린 2부 음악회는 월드쉐어 USA 주사랑 여성 합창단(지휘 문혜원, 반주 김현아) ‘주 함께 살리라’, ‘태산을 넘어 hymn에 가도’, LA 남성 선교 합창단(지휘 원영진, 반주 오지혜) ‘은혜 아니면’, ‘우리 주의 성령이’, 하나콰이어(지휘 김문현, 반



주 임희경) ‘주는 포도나무’,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LACS(Los Angeles Christian Singers, 단장 문혜원, 반주 윤경미) ‘웃 자락에서 전해진 사랑’,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로 무대를 장식했다.

이번 음악회는 월드쉐어 USA가 주관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 신앙회복 운동본부, 다민족 연합 기도운동, 미주한인군목회, 기독교일보, 크리스천 위클리, 미주 크리스천 신문, 우남회가 후원하고, 예은교회, 나침반 교회, 코너스톤교회를 비롯해 18개 교회가 협력했다.

아이티 서남부 프티트루드니프(Petit-Trou-de-Nippes)에 1973년

세워진 아이티 소망학교(교장 다니엘 조셉 목사)는 2021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으나 2023년 강태광 목사의 저서 판매 수익금으로 교실 1동을 건축했고, 전체 교실과 예배당을 건축 준비 중이다.

월드쉐어 USA는 터키 지진 구호 지원, 가자 지원 분쟁 희생자 구호 지원 등에 참가했으며, 수리남 빈민 아동, 아이티 지진 피해 아동, 도미니카 빈민 아동,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 아동을 돕고, 절대 빈곤 지역 학교를 통해 학원 선교를 협력하고 있다.

후원문의: 월드쉐어USA 323-578-7933,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김귀보 목사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기독일보 주관, 6/9,10(월,화) 토랜스 제일 장로교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고민이자 목회 사역의 본질적인 질문이다.

이에 기독일보에서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인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를 초청해,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6월 9,10일(월,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개최한다.

김 목사에 따르면, 내러티브 설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만나게 하며, 성도들의 삶을 깊이 있게 터치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익을 지닌다.

“성경이 문자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담고 있던 입체적 사건이 평면화되었고, 따라서 현재의 독자는 원래의 청자가 지니고 있던 상황,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떠올리기 어려워진다. 즉, 머릿 속에서 사건이 그려지기 보다는 정보로만 머릿 속을 맴돌게 된다.”

김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연구, 해석, 전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자화되고 경전화된 말씀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되살려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미나 등록은 QR 코드로 할 수 있으며, 무료이다. 점심과 교재가 제공된다.

일정: 6월 9일~10일 (월~화) 오전 9시~오후 4시
장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문의: 213-739-0403

시니어가 교회를 살린다...시니어 사역 세미나

6월 10일, 홀러튼 장로교회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신앙 및 사역 현황 조사 결과 발표

미주 한인교회에 시니어 사역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오는 6월 10일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시니어 사역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 세미나는 시니어를 단순한 사역의 수혜자가 아닌 동역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번 세미나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CPU 평생교육원)이 주관하며, 홀러튼 장로교회에서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목회자뿐 아니라 시니어, 시니어 사역에 관심 있는 이들로, 등록자 200명까지는 점심과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에는 사역의 이론을 넘어 실제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된다. CPU 평생교육원이 올해 1~3월에 걸쳐 진행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신앙 및 사역



제2회 시니어 세미나가 6월 10일(화) 오전 9시 홀러튼 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현황 조사’의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다. 이 조사는 시니어 성도들의 신앙생활, 사역 참여도, 소명의식, 미래 사역 기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설문이다.

호성기 목사(PGM 국제대표)의 ‘시니어 전문인 선교사’ 강의와 이성희 목장의 조사 결과 발표, 송병일 목사(덴버 한인기독교회)의 현장 사례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참석자들이 실제로 시니어 사역에 대해 나누고 정리할 수

있도록 소그룹 토의 시간도 마련된다. 한국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소장의 영상 메시지도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CPU 평생교육원 이성희 원장은 “이제는 시니어가 교회를 세우는 시대다. 1차 세미나가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면, 2차는 방향성과 전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의: lifelonghwang@pts.edu / 562-536-0128 (황성만 목사)

HD은혜교회 6주년
창립 기념 및 취임 감사예배

HD은혜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비전 아래 김의구 목사님의 취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의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6/1(주일) 오후 4시
장소: HD은혜교회
설교: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담임목사: 김의구 / 김혜실 사모
EM Pastor/동시통역: Wayne Uyehara
협동 전도사: 토마스 오
미디어/찬양인도: 승 철 목사

213.441.4833
hdgrace.victorville@gmail.com

HD 은혜교회 (High Desert Grace Church)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CA. 92392

제41회 사랑의마당축제, 사랑과 화합이루다

ANC 온누리, 해피빌리지, 풀무원, 남가주밀알선교단 공동 주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1회 사랑의마당축제'가 5월 17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니 파에 있는 '부에나파크 미들스쿨'에서 열렸다.

사랑의마당축제와 사랑의축제는 각각 매년 5월과 12월, 남가주 지역 장애사역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로 발달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과 화합의 축제이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교회 내 장애사역 부서나 단체들 간의 교류와 친교가 이루어지며, 경품 추첨, 댄스파티 등 신나는 놀이

가 제공되는 행사이다. 이번 사랑의마당축제는 ANC 온누리교회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풀무원,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GBC 미주복음방송과 Caravan Canopy, Hanmi Bank, OC 한인라이온스클럽, Royal Business Bank 에서 특별 후원했다. 또한 총 44 개 교회와 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약 100여 명의 장애인, 그들의 가족들, 스태프와 봉사자들이 참가했다.

1부 순서로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의 환영사와 Sean Lee 전도사가 인도하는 ANC 온누리교회 GM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James Jang 장로



사랑의 마당 축제에 참가한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댄스파티를 즐기고 있다. ©기독교일보

의 기도예에 이어 Enoch Lee 형제가 특송을 불렀으며, 이종선 ANC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말씀을 전해주

었다. 또 보이스카우트의 flag ceremony공연에 이어 남가주사진작가협회가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각 부스에 푸집한 음식이 준비되었다. 올해는 특별히 해빗버거 트럭 2대에서 햄버거를 제공했다.

2에서는 SOW(Seed of Worship) 팀의 찬양공연, 장애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파티, 양희원 집사(남가주밀알)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고 김장호 Happy Village 국장의 폐회기도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VOD 서비스업체 OnDemand Korea 에서 경품 티켓으로 후원하였고, 보이스카우트 OC 지역 청소년봉사팀 HOPE, 밸리지역 청소년 단체 Loving Hearts 등도 정성스런 봉사로 행사에 힘을 보탰다. 남가주 밀알 기사 제공



센터메디컬그룹 일일관광 성황

몸과 마음의 치유 여행 크리스탈 코브 주립공원

센터메디컬그룹이 지난 5월 13일(화)과 14일(수), 양일간 진행한 시니어 대상 일일관광 이벤트가 압도적인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시간으로 기획되었으며, 시니어들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5월 13일에는 오렌지카운티(OC) 출발팀이 크리스탈 코브 주립공원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플러튼 캠퍼스 내 식물원을 방문했으며, 5월 14일에는 LA 출발팀이 앤털롭 밸리의 파피 필드와 바스케즈 락스

를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2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참여했으며, 각 차량마다 대기자가 많이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여행은 모두 센터메디컬그룹의 전역 부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니어들이 안전 수칙 아래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편, 식사, 간식, 기념 선물 등 모든 요소가 시니어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이는 역시 센터메디컬그룹이 시니어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센터메디컬그룹: 888-847-3098

가정예배, 그 특별함을 나눠주세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만 가정 내에서 드러지는 따뜻하고 진솔한 예배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공모전이 열린다.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은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나누는 자리로, 5월 1일(목)부터 6월 6일(금)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주최,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주관으로, 남가주 지역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전은 가정예배를 통해 경험한 은혜를 공유하며 이만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획됐다. 부모-자녀 2세대 가정, 조부모와 함께하는 3세대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모든 가정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내용〉
월드미션대학교 또는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의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가정예배 소개서’를 다운로드한 후,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Letter 사이즈 3~6매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우리 가정만의 예배 방식
▲예배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예배를 통해 경험한 변화와 가족의 소감

▲비전과 기도제목 등.

또한, 3분 이내의 영상(가족 소감 또는 감사 메시지)과 예배 장면이나 예배 소품이 담긴 사진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영상은 휴대전화로 간단히 촬영해도 된다.

월드미션대학교 최윤정 부총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만 가정들이 가정예배의 감동을 다시 회복하고, 그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한인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 역시 “가정예배를 통해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면,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와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수많은 가정에 희망과 격려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작 접수는 5월 1일(목)부터 6월 6일(금)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www.kgbc.com) 또는 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kr.wmu.edu)의 공모전 배너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구글폼을 통해 문서와 자료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6월 13일(금), 미주복음방송 및 월드미션대학교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총상금 \$5,000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6월 26일(목)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진행된다. ▲대상(1가정): \$1,000 ▲최우수상(2가정): 각 \$500 ▲우수상(3가정): 각 \$400 ▲장려상(6가정): 각 \$300.

〈공모전 안내〉

1.기간: 5월 1일(목)부터 6월 6일(금)까지

2.접수방법: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kgbc.com) 또는 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kr.wmu.edu) 참고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가정의달 스페셜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센터메디컬그룹

한인 시니어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진료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다



센터메디컬그룹 주치의 -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

미국에 정착한 한인 시니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와 그 인근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시니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정신 건강을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센터메디컬그룹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역할을 넘어, 한인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의료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실 중 하나가 바로 정신건강 분야의 유능한 한인 전문의, **고제득 박사(정신과 전문의)**의 합류입니다.

정신과 진료, 한인 시니어들에게 더 가까이

고 박사는 미국 내에서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인 시니어 환자들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진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료하는 지역은 로렌하이츠, 플러튼, 그리고 가든그로브 — 모두 한인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정신과 진료는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낯설고, 두려움도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죠.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고제득 박사

고 박사는 오로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센터메디컬그룹의 문을 두드렸고, 그룹은 그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진료 외의 행정적 업무와 병원 운영의 부담은 그룹 차원에서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료 스케줄 관리, 마케팅, 스테프 채용, 보험 처리, 그리고 TMS(경두개 자기자극 치료)와 같은 고급 치료 옵션 제공까지 — **의사는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위해 존재하며, 그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경이 됩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단순한 병원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의료진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복잡함 속에서도 의료진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센터메디컬그룹은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전방위 행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이끌고 있는 **제이 최 대표**의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땅에서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병원은 단지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제이 최 대표

함께하는 의료진, 그리고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현재 센터메디컬그룹은 내과, 가정의학과, 통증클리닉, 정신건강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유능한 의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다수는 한인 시니어 환자들을 오래도록 돌봐온 경험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중심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s)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거주 전역 어디서든 **한인들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 이것이 센터메디컬그룹이 그리는 다음 10년의 그림입니다.

“한인 사회와 함께 숨 쉬는 의료, 센터메디컬그룹은 오늘도 환자의 삶을 중심에 둡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할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료진으로서의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직영점-센터메디컬클리닉〉
센터메디컬 클리닉 플러튼 직영점 (714) 519-3024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직영점 (714) 583-8569
센터메디컬 클리닉 로렌하이츠 직영점 (626) 363-4661

〈의료진 참여 및 문의〉
(760) 927-0927
www.centeripa.com



▶ 센터메디컬그룹 TV

전국 기독교 543개 단체 연합,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대한민국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교계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 연합기관인 ‘사단법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기총연)와 전국 보수기독교 300개 단체연합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 대한민국 가치 분명히 인식 신앙 가치 실제 정치에 반영한 인물
단체들은 전기총연 대표인 임영문 목사가 낭독한 지지선언문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가치의 붕괴”라며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사실상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별금지법 등은 결국 가정과 교회,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듣기에는 매력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다음 세대를 혼란 속에 방치하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경고하며, “대한민국이 지금 물질이 목적이 된 사



정재웅 박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한국실천신학회

회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치인들이 ‘누가 더 나뉘느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로 인해 도덕과 책임,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 온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본질적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자유, 책임, 공동체”라며 “김문수 후보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가 선택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 책임이 있다고 믿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김문수 후보는 오랜 노동운동 경험과 공직을 통한 행

정력, 무엇보다 신앙의 가치를 실제 정치에 반영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자유·정의 위해 몸 바쳐 싸운 애국가 신앙 가치관 바탕해 국가 비전 제시**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도 이날 함께 참석해 대표회장인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가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서기총은 “원칙과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때,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헌신적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직한 일꾼, 김문수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로서의 헌신, 경

기도지사로서의 탁월한 행정 능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원칙 있는 정치 행보를 통해 오랜 세월 일관되게 국민을 섬겨왔다”며 “특히 그는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왔으며, 시대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신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왔다”고 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 위해 몸 바쳐 싸워온 애국가”라며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경제, 교육, 저출산, 도덕적 붕괴 등의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 △군건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강화 △공교육 정상화와 도덕적 교육 회복 △성실한 노동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정책 △기독교적 가치와 국민윤리에 기반한 사회 회복이라는 김 후보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산주의와 싸운 보수 나라 한국 번영과 통일 도구로 쓰임받을 것**

이날 이인제 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김 후보를 지지했다. 이 전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의 단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며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를 세우셨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다. 건국할 때부터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했고, 건국 직후 공산세력의 침략을 미국 등 자유진영과 함께 물리쳤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산업혁명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산층이 생겼고, 그 안에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꽃을 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 교결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너뜨려려고 하는 세력과 김문수 후보가 맞서고 있다”며 “김 후보는 청년시절엔 사회·공산주의자였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를 보고 자유·보수주의에 귀의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뤄 북한 동포들도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지지 선언식에는 전국 각지의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과 목회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5본부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1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에 이어서]
강 씨는 “코로나19 봉쇄가 북한 당국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과 기회를 제공했다”며 “친구 중 세 명이 처형됐는데, 두 명은 단지 한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이유였다. 한 명은 겨우 19살이었다”고 증언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에 이어, 유엔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대표 기관인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노예화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 강제노동 상황과 강화되는 감시와 국경 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즉각 해결돼야 한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인 김정욱·김국기·최준길 선교사를 즉각 석방해 달라”며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비인도적 대우도 우려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 달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너무 오랫동안 핵 위협에 가려져 왔지만, 인권 침해야말로 북한 정권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한다”며 “북한은 많은 면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현실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무기 개발은 긴밀히 연계된 사안으로, 인권 침해가 중단되면 핵무기 개발로 중단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

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지속 개발 중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전 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석한 국가들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악화되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악화되는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레그 스칼라투(Greg Scarlatou) 북한인권위원회(HRNC)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그치지 않고, 중동과 동유럽을 포함한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이란을 통해 중동 지역 테러단체에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북한은 중동과 유럽에 불안정과 폭력을 수출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은 북한이 자행하

는 인권 침해”라고 했다. 30여 시민사회단체 글로벌연대를 대표하는 셴 정(Sean Chung) 한보이스(HanVoice) 대표는 “북한의 인권 원동력”이라며 “북한 인권 침해와 국제평화 및 안보 위협 문제를 조사하는 유엔 총회 차원의 독립적 전문가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유엔대표부는 이날 오후 유엔 회원국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 인권 글로벌연대와 공동으로 리셉션을 개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을 포함, 다양한 무대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사, 탈북민에 “쓰레기” 막 말**

이날 회의에서 탈북민 증언 중 회의장에 등장해 다음 순서로 발언한 주유엔 북한 김성 대사는 “유엔 본부에서 이런 회의가 소집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더 유감스러운 것은 부모와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지상의 쓰레기(scum of the earth)’ 같은 자들을 증인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탈북민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성 대사는 “이런 인권 단체들은 인권 노예 집단이고, 오늘 회의는 이들이 비참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며 “유엔 인권 재판대에 앉아야 할 진정한 범인은 ‘최악의 인종 차별 국가, 인신매매의 왕국, 자살의 천국, 성 노예 범죄 국가’인 미국과 서방”이라고 주장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유엔 총회에서 ‘막말’을 투척한 북한에 대해 대부분 국가들이 황당해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옹호하고 나섰다.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북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북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북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유럽복음연맹, 신임 교황 레오 14세
선출 축하 메시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 ©NBC 뉴스 보도화면 캡처

유럽복음연맹(EEA)은 미국인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EEA는 지난 13일(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제267대 교황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가입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1982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사제로 서품을 받아 교황이 되기까지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EEA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다”며 “그의 신학적 유산,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은 여러 교파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가들에게 영감을 줬다. 교황 레오 14세가 이러한 신학적 전통을 따른다면 복음의 핵심 문제에 대해 더 명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EEA로서 우리는 다른 기독교 전통의 기도자와 공동체와 우호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참된 영적 일치는 오직 성경적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다. 유럽 전역의 국가 복음주의 연합인 EEA는 사회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른 기독교 단체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 이주, 기후 위기, 생명 보호, 국가 간 평화 추구와 같은 공동의 이슈에 대해 책임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EEA는 “우리는 복음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고 강력하게 선포돼,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신미셀 기자

온두라스 복음주의자들
“성경적 원칙으로 돌아가자”



▲프렌테 에 프렌테 보도화면 캡처.

온두라스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선거 불확실성의 증가 속에,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국민의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며 치유와 도덕적 회복으로 나아가자고 권유했다. 최근 카날5에서 방영된 인기 프로그램 ‘프렌테 아 프렌테’(FRENTE A FRENTE)에 출연한 저명한 교계 지도자들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 및 종교계 인사들에게 영적 쇄신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테구시갈파목회자협회 회장인 마리오 바네가스(MARIO BANEGAS) 목사는 온두라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용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용서의 부재가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 우리는 수많은 문을 열어주고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 강력한 단어를 잃었다. 이러한 미덕을 재발견하는 것이 국가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두라스복음주의연합회 회장인 헤라르도 이리아스(GERARDO IRÍAS) 목사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정면 대결은 도덕적 권위를 가진 단체, 즉 교회와 언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회개는 온두라스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왔다. 예비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싸고 국가선거관리위원회(CNE)와 군부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CNE 내부의 분열과 상호 비난은 온두라스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목회자들은 요엘서 2장 12-13절을 인용해 “검손을 받아들이고 성경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온두라스 공적 생활의 도덕적·영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개와 용서가 국가적 화해의 기초이자 더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 오전 11:00
어린이에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Only)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에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써니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에 오후 2:0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에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에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N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일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N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NC 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에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김재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서사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한현종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키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 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취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장년(교육부) 오전 11:4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출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英 성공회 “4년 연속 예배 참석자 수 증가”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는 4년 연속 예배 참석자 수가 증가했다는 최신 수치를 환영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예배 공동체는 2024년 1.2% 증가해 정기 예배자가 102만 명에 이르렀고, 주일 예배 참석자는 1.5% 증가해 58만2천명이 되었다. 주간 참석자 수도 1.2% 증가해 70만1천명에 달했다. 성인 참석자 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주일과 주간 참석자가 각각 1.8%와 1.5%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영국 성공회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으며, 교회 찾기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55% 증가했다. 2024년에는 페이지 뷰가 거의 2억에 달했다. 영국 성공회 임시 수장인 스티븐 코트넬 요크 대주교는 이러한 수치에 고무되었으며, 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신호로 여겼다.

그는 “영국 성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국의 모든 지역 사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징조를 보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것은 단지 단편적인 모습일 뿐이고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의 나이를 알 수 없지만, 다른 증거에 따르면 이들 중 다수가 젊은 성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또한 일요일마다 교회를 방문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를 주는 저의 경험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회에서 매일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의 믿음과 희망에 대한 증거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다.

영국 성공회의 비전 및 전략 책임자인 데비 클린턴도 이 수치에 고무됐다면서

“저희 통계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각 개인은 지역 교회에 속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도시와 농촌 지역, 우리 영지와 산업화 이후 해안 도시 모두에서 교구가 성장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보았다”라며 “전국적으로 우리는 모든 청소년이 가까운 곳에서 변영하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석하는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최근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교회 중 하나가 런던 남부에 있는 세인트 존스 어퍼 노우드 교회다. 이 교회의 사제인 존 프리처드 신부는 교회가 예전에는 쇠퇴했지만 지금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40명의 자원봉사자가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최근 종려주일 미사에는 당나귀가 등장해 300명 이상이 참석했고, 부활절 바베큐에는 약 2천명이 참석했다.어린이를 위한 매달 열리는 모임에는 약 400명이 참석하는데, 그 중 일부는 세례를 받고 매주 열리는 교회에 합류했다. 매주 열리는 신앙 기반의 부모와 유아 모임에는 현재 400명의 정기 회원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레이철 클레드힐 부목사가 어린이와 젊은 가정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2년간 개척한 노력의 결과다. 교회의 다음 단계로는 청소년 담당 목사를 고용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사역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프리처드 신부는 “우리 교회는 쇠퇴했지만 더 이상 쇠퇴하지 않는다”라며 “사람들은 공동체를 찾고 가치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며, 복음은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한다”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이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 자선단체, 「자살 유가족을 위한 기독교 연구」 개정판 출간

망이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자살 유가족을 위한 기독교 연구」는 자살 상실을 경험한 유가족을 위한 12주 과정의 소그룹 교재로, 자살에 대한 신학적, 심리적, 관계적 요소를 아우른다. 다루는 주제로는 자살과 슬픔, 자살의 성경적 맥락, 자책감과 수치심, 예방과 자기 관리, 교회 내 지원의 중요성 등이 있다. CASSL은 이 자료를 교단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책과 전자책 형태로 배포하고, 온라인 모임 및 지도자 훈련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기: 자살 유가족을 위한 기독교 연구」책 표지.

미국의 비영리 자선단체인 기독교자살유가족협회(CASSL)가 자살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을 위한 새 교재 「앞으로 나아가기: 자살 유가족을 위한 기독교 연구」(Moving Forward: A Christian Study for Survivors of Suicide Loss)의 두 번째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 교재는 소그룹이나 개인 학습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자살 문제에 직면한 이들과 그들을 돕는 이들을 위한 신앙 기반의 회복 여정을 안내한다.

CASSL은 자살 예방 및 인식 향상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자살 유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적 상담과 사역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공동 창립자 테리 오스본(Terry Osborn)은 “자살로 인한 상실이라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

오스본은 “자살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준비돼야 한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은 자살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전할 수 있다”고 했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2만 명이,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4만 9천 명이 자살했다. 특히 10~24세 연령대에서는 자살이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 지난 20년 동안 자살률이 무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본은 “이는 기록적인 수치”라며 “정신 건강, 사회적 고립, 재향군인 여부, 노숙, 성별, 인종, 지역 등 60가지 이상의 복합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며 “자살을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나 사건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英 기독교 단체 “성공회 학교 새 지침, 진보 어젠다 세뇌”



영국성공회 소속 학교의 어린이들. ©영국성공회

영국성공회(Church of England)가 최근 개정한 학교 폭력 방지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의 인권단체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해당 지침이 ‘진보적 어젠다 세뇌’를 조장하며 성경적 원칙을 진보적 이념으로 대체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성공회는 이를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성경적 틀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모두를 위한 번영’(Flourishing for All)’이라는 새 지침서에 대해 크리스천컨선은 5월 13일 성명을 통해 “이 문서는 비판 이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와 연관된 이념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해당 지침이 인간의 번영을 ‘어린이들이 성적 및 성 정체성 등 보호받는 특성을 탐구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기독교 윤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크리스천컨선은 이 지침이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같은 세속적 이념에 기반하며, 기독교적 평등보다 교차성에 치우친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이들은 영국성공회 내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들어, 목사들이 LGBT 이념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버나드 랜달(Bernard Randall) 목사는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이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후 해고됐으며, 영국성공회는 그를 ‘위험 인물’로 낙인 찍었다고 했다. 또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적 성전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독교 교사가 성경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도 나왔다.

크리스천 컨선은 “이 지침은 영국교회 가 관리하는 4,500개 학교에서 성경적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는 증거”라며 “기독교적 가치와 양립하지 않는 세속적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괴롭힘 방지’ 조항을 기독교 교사들이 성경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기면 교사와 성직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국성공회는 “이 지침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성경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성과 연민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성경적 이해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영국성공회 대변인은 “이 지침은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며 존엄성과 연민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성경적 원칙에 근거한다”며, 평등법(2010년 법률)에 따른 차별 방지 조항을 강조했다.

신미셀 기자

트럼프 “가자지구 자유지대로 만들 것”... 미국의 책임 강조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주에서 식수를 배급받기 위해 대기하는 가자 주민들. ©세이브더칠드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촉구하면서, 해당 지역을 ‘자유지대(free zone)’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카타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지구는 오랫동안 죽음과 파괴의 땅이었다. 우리는 이곳을 자유지대로 만들어야 하며, 미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이 지역을 소유하고 점령하게 된다면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아’로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당 지역의 광범위한 파괴 상황을 이유로, 주민들을 일시 대피시키고 전면적인 재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자 주민 약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국을 찾는 것은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남아 있는 건물이 없는 상태다.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자지구의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에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휴전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하마스의 완전 제거’를 전제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러한 휴전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의 가자 재건 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발언에서 하마스를 ‘처리해야 할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2023년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홀)**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채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출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조응철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회 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2025 인랜드교회 장학금모집

인랜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수한 인재로서 장래 하나님의 사업 또는 사회에 기여할 바가 기대되는 자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신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랜드교회 홈페이지 (inlandchurch.org/scholarship)에서 ‘인랜드 장학금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5월 25일부터 7월 13까지이다.

문의: scholarship@inlandchurch.org

2025년 인랜드교회 장학금

Inland Church Scholarship

신청마감 | 2025년 7월 13일 (주일)

문의 | scholarship@inlandchurch.org

자세한내용 | 홈페이지 참조 (www.inlandpca.com/scholarship)

주안에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선교세미나

샌퍼난도 벨리에 있는 주안에교회(담임목사 이충환)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창립기념 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5월 30일(금)부터 6월 1일(주일)까지 열리며 창립 12주년 감사예배는 6월 1일 오전 8시와 11시 1, 2부 예배에서 열린다.

이번 선교세미나의 강사 김일권 선교사는 중동선교사로 17년을 사역했으며 OM한민국제선교회 대표, 한국 OM선교훈련원 원장, 미주 장신대 선교학 교수를 지냈다.

세미나 일정
5/30 금 오후 7:45
5/31 토 오전 6시, 8시
6/1 주일 오전 8시, 11시

주소: 19541 N.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연락처: (818)363-5887

주안에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선교세미나

해변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12년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불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줄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

"말씀이란 빛을 밝히려 하는 내 빛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땅에서 내 위에 임하옵시라"(사 60장 1절)

FR/5.30.2025 7:45pm

SA/5.31.2025 6:00am&8:00am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SU/5.01.2025 8:00am&11:00am

동행과 상생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과정”

GBC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가 협력하여 마련한 교회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 과정이 제공된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이번 커리큘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강정자 교수는 이 훈련 과정이 가정과 교회의 모든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필요함을 역설했다.

동행과 상생 본부의 사무국장인 이세영 목사는 이번 훈련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아이들을 돌보아 하는 개척교회 사모님들, 교회 교육 디렉터나 부장 집사님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 교육과 관련된 장로님, 안수집사님 등 교회 리더들을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이 목사는 “자녀를 두고 보고 있는 분들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며 부모님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훈련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기본 이해, 발달 단계별 복음 교육, 디아스포라 정체성, 공교육 가치와 기독교 가치의 차이, 가정 및 부모 교육, 어린이 예배와 성령 체험, 상담과 치유, 온라인 및 AI 자료 활용 등 부모와 교육 리더십 모두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이세영 목사는 특히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읽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미국인 부모들이 미국 문화를 잘 모른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입장을 언급하며,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신뢰가 있는 소통”이 현재 많이 무너져 있음을 지적했다.

본 훈련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온라인 미팅은 6월 1일 저녁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오리엔테이션 및 안내가 이뤄진다. 이후 주별 강의는 녹화 방송으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의 온라인 시스템(Canvas)을 통해 제공된다.

등록 마감은 5월 28일까지이며, 첫 온라인 미팅은 6월 1일 저녁에 시작된다. 등록은 동행과 상생 홈페이지 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전화 714-484-1190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이들 수가 10명 미만인 작은 교회나 선교사에게는 50%에서 100%까지 장학혜택이 제공 된다. 신미셀 기자

교회교육사역자 12주 훈련 수강생 모집

마주한교회의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12주 집중 훈련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를 위한 온라인 및 AI 자료를 활용한 교육, 어린이 예배와 성령 체험, 상담과 치유, 온라인 및 AI 자료 활용 등 부모와 교육 리더십 모두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지원마감 2025년 5월 28일
수업시작 2025년 6월 1일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5년 대박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 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TALK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고.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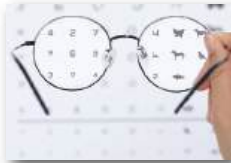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 | | |
|---|---------------------------|---------------|
|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 활성산소 완화 | ● 장내 효소 증가 |
|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 소화기능 개선 |
|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 빈혈, 간 기능 개선 |
| |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 면역체계 향상 |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김영한 칼럼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II)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II. 로마인들에게 인식된 십자가 처형
로마의 법률가 율리우스 바울(Julius Paulus)이 편찬한 『형법』(Sententiae)은 로마시대에 행해진 세 가지 가장 잔인한 형벌을 다루고 있다. 첫째, 십자가형(十字架刑)(crux), 둘째, 화형(火刑)(crematio), 셋째, 교수형(絞首刑)(decollatio)이다. 그리고 짐승에게 찢기는 형(damantio ad bestias)은 잔인한 형벌로서 교수형에 대신하여 종종 행해졌다.

십자가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 누설자, 반역 선동자, 살인자, 통치자의 변역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등이다. 십자가형은 그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항상 하류계층에게만 적용되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당시 그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준다. 그는 하

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당시 사회의 하류계층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류계층에게는 보다 인간적인 형벌이 적용되었다. 십자가형은 처형자를 맹수에게 던지는 대중오락과 비교할 수 있으나, 짐승에게 찢기는 형은 대중적인 축제가 거행되는 특수한 때에 수행될 수 있으나, 십자가형은 어느 곳에서나 시행될 수 있는 일반적인 처형방법이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Seneca) 같은 지성인은 십자가형과 같은 고대사회의 처형방법이 잔인한 방법이라고 혐오하면서도 범죄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처형되어야 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는 사도 바울의 말을 실감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러한 잔인한 형벌에 의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의 낮아지심과 대속적 죽으심의 사랑과 희생을 깨우쳐 준다.

III.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자를 벌거벗겨 눈에는 띠는 장소, 네거리, 극장 안, 높은 언덕, 범행 장소에 공개적으로 진열시킨다. 그럼으로써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자의 내면에서도 최대의 수치를 느끼게 하였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고대세계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형은 처형한 자를 대부분 매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처참하게

평가되었다. 처형당한 자는 매장을 거절당하고 그의 시체는 맹수들과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먹이로 주어졌던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당사자에게 완전한 굴욕과 수치를 가져다주었다.

구약시대 모세도 “십자가형이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b). 그러나 모세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악한 풍습에 반하여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로 장사지내라고 명하고 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2-23).

시신(屍身)을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 놓으면 시신이 맹수들과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먹이가 되어 훼손되기 때문에 처형된 자의 시신 보존을 위하여 그 날에 장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은 자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성결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처럼 로마시대 하류 계층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 처형당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낮아지심이요 겸허와 자기 비움의 모습, 인간 구

속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계속>

하늘바라기



© pexels.com

기다릴게 - 김은주

사랑할 수 있니?
따라올 수 있니?
감당할 수 있이니?
아마도 넌 어렵다 하겠지...

기다릴게
많이 많이....

그때가 되면 넌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 수 있을 거야

강태광 칼럼

아름다운 마무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얼마 전 전 고 김춘근 장로님 추모 예배(Memorial Service)에 참석했다. 김춘근 장로님은 미국의 여러 대학 교수로, 자마(JAMA)설립자로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요 젊은이에게 꿈을 심어준 멘토로 살았다. 추모 예배는 장로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눈물이 많아 이런 예배에서는 거의 항상 눈물을 흘리는데 이번 추모 예배에서는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조사 및 추모사 그리

고 설교 시간에 큰 은혜가 있었고 고인의 삶에 대해 부러움과 존경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나아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유족들의 추모사 시간이 참 좋았다. 아버지와 남편을 보낸 슬픔을 누르며 담담히 토해내는 사랑과 존경의 고백은 큰 울림이 되었다. 고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고인이 참 잘 사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추모 예배의 클라이맥스는 남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가득 담은 김 교수님의 아내 김 권사님의 추모사였다. 권사님은 담담하게 장로님의 귀한 인생을 그려주셨다. 김 장로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마음에 담고 돌아왔다.

몇 주 전 어느 교회의 마지막 예배에 참석했다. 후임 목회자를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며 교회를 정리한 것이다. 함께 지내온 세월을 돌아보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기 좋았다.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하며 계속 주님을 섬기기를

권면하였고,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남은 세월을 축복하며 응원했다.

교회의 마지막 예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멈춰야 할 때를 알고 그 멈춤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였다. 그들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고 싶다.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지혜가 보였다. 힘차게 달려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리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마지막이 있다. 사역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한다. 사역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모든 사역은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짧은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무리

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찰나와 같은 권력을 갖고 그 권좌가 영원할 것처럼 휘두르는 사람도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점에서 인생이나 권력을 보면 그야말로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고 권력 무상이다.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집행 직전 황제 특사로 살아남았다. 그는 다시 얻은 인생의 기회를 값지게 살았다. 그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고, 통찰력이 있는 명작을 남겼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길이 남는 대문호가 되었다. 그가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 교만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다. 탐욕은 권력과 소유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게 한다. 지혜는 돈과 권력의 한계를 알고 삶의 본질을 보게 하고 속도를 조절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는 삶의 본질을 깨닫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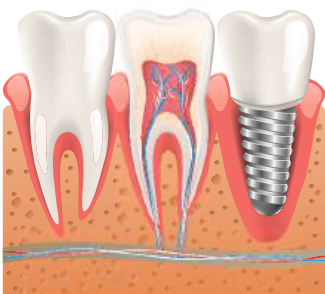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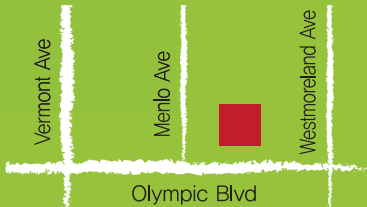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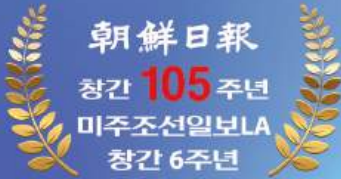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대한민국 트롯 열풍의 주역 미스터트롯3 TOP7이 LA를 강타한다!



춘길

김용빈

추혁진

손빈아

천록담

남승민

최재명



2025년 8월 24일 (일)

2 PM / 6:30 PM (2회 공연)

월셔이벨극장 | WILSHIRE EBELL THEATRE

743 S. Lucerne Blvd., Los Angeles, CA 90005



미주조선일보LA 창간 6주년 기념 미스터트롯3 TOP7 LA공연이 월셔이벨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임용빈, 손빈아, 천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이상 TOP7 전원이 LA공연에 출연합니다. 임영웅을 잇는 차세대 트롯 황제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뜨겁고 진한 감동의 무대를 느껴보세요. 하나 더! 미스터트롯3 TOP7과 함께하는 멕시코크루즈 4박5일(8월 25~29일), 엘리트투어와 떠나세요. 문의 - 엘리트투어 (213)386-1818

티켓 예매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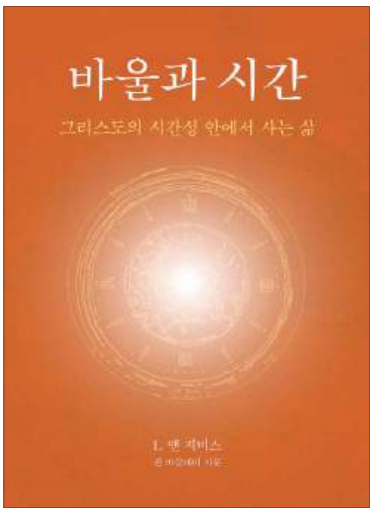
e-mail. ticket@chosundaily.com



구독신청. (213)459-6800 | 광고문의.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의 진리를 시간성 속에서 풀어낸 책

‘이미와 아직 사이’, 바울이 생각했던 ‘시간관’이 아니었다?



바울과 시간
L. 앤 저비스 | 김지호 역 | 도서출판100 | 320쪽 | 22,000원

바울의 시간관은 보통 두 시대의 중첩 또는 ‘이미와 아직’ (already-not yet)으로 이해되어 왔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신자들은 악한 현시대와 새 시대가 중첩된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책에서 앤 저비스는 그것이 바울의 시간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저비스는 바울 서신에 대한 성실한 주해를 바탕으로, 신자들은 두 ‘시대’ 의 중첩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만 산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참 놀랍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의 진리를 시간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자가 전개하고 싶어 하는 주제, 곧 신자는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대한 모티프를 이해하려면 ‘구원사적 관점에 본 바울의 시간 개념’과 ‘목시론 관점에서 본 바울의 시간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바울 학파들의 만성 없는 습관에 도전하고 있다. 즉 ‘이미와 아직(already-not yet)’을 결합해 현재 신자들이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의 ‘중첩’ 내지 ‘긴장’ 속에 존재한다는 식으로 바울의 종말론을 설명하는 일반적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아들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현재 시간을 신자들에게 열어주신다는 놀라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 속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신자는 모든 것, 심지어 고통, 인간의 죄 성향, 육체적 죽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으로 변형되고, 생명과 삶을 위해 변형되는 초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위해 아우구스티누스, 칸트, 플라톤, 칼 바르트를 인용한다. 하지만 바울의 사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원사적 관점과 목시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기서 구원사적 관점이란 시간을 선형적이고 순차적이며 목시론적으로 보는 것이며, 목시적 관점이란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을 현재적 시간 속으로 침입하실 수 있고 또 침입하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구원사적 관점에서 본 바울의 시간 개념을 설명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볼트만의 <역사와 종말론>, N. T. 라이트의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제임스 던의 <바울 신학> 등에

서 다루고 있는 직선적 시간 개념,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의 긴장이라는 시간의 중첩 개념을 나름의 이해력으로 통찰해내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적 과정의 일부로서 구속을 성취해 오셨고,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종말의 시간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저자는 목시론 관점에서 본 바울의 시간 개념을 설명하면서, 알베르토 슈바이처의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 칼 바르트의 <로마서>와 <교회 교의학>, 에른스트 케제만의 <로마서>, <Primitive Christian Apocalyptic> 등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 개념을 분석한 결과, 바울의 두 시대라는 개념 속에는 근본적으로 목시적 개념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연속적 두 아이온에 대한 목시적 도식은 현재 시간 속으로 침입했으며,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시간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실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현재 두 시대가 동시에 존재하며, 신자들은 두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시대를 개시했기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새 시대에 살고 있고, 부분적으로 옛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결론은 신자가 단순히 중첩된 시대에 살아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항상 바울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닌 시간성을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다. 즉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곧 신자가 그리스도의 현재적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냄으로써 악한 현 시대와 완전히 구별되는 시간성 속에 살아가며, 악한 현 시대에서 해방돼 높



▲사도 바울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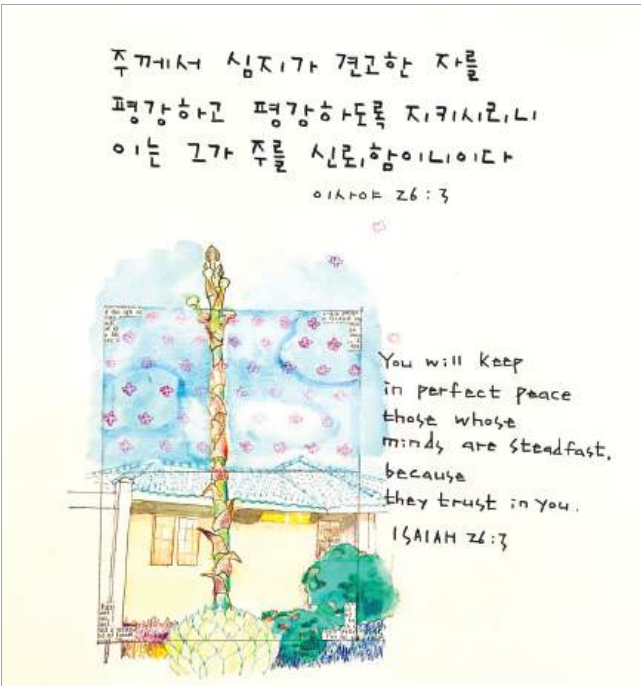
아지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고, 인간의 삶 속에서 성령을 매개로 한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현재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살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가운데 살고, 현재적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현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위에서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의 날/ 파루시아가 도래하기 전부터 현재적 삶으로 누릴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신자의 승리로 치환할 수 있으며, 이미 그리스도께

서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했기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보로 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사탄에 맞서는 선택만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현시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이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높아지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시간성 안에 살고 있다”는 말로 압축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종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 전임 부목사 청빙

시카고 근교 네이퍼빌에 위치한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는,
주를 향하여 젊고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품은 사역자로서,
예배찬양사역과 교회행정을 협력해서 도울 부교역자(Full-time)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 격: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M.Div. 이상 신학훈련을 받으신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 미국에 합법적 체류자, 또는 한국 목회자도 지원 가능: 종교비자, 영주권 도와드립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 소개서>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마감 : 6월 14일(토), 또는 교역자가 정해질 때까지

■이 메 일: mutulan@hotmail.com
■문의전화: 교회 630-778-0101, 안창민목사 630-962-7904
■교회홈페이지 주소: www.ilovechurch.org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안창민)
23W550 Hobson Rd. Naperville, IL 6054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개화기 평양 화단과 기독교 학교

선교사들 세운 기독교 학교, 일제 치하 조선을 깨우다

평양 지역 많은 신자 가정에서 예술가, 특히 서양화가 배출돼 한국인 문화적 감수성 접목도 침묵에 빠진 조선 흔들어 깨워

기독교 선교사들이 정착한 개화기 평양은 한양과 더불어 문화활동이 가장 적극적이던 지역이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막습인 반상(班常)의 구별을 없애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회균등 사상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음악·문학·미술 등 신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

이 시기 눈길을 끄는 것은 선교사들의 기독교 학교 설립이다. 1906년 평양 지역에만 13개 학교 281명의 학생에서, 1907년 1년 만에 17개 학교 473명으로 성장했다. 선교사 엘머 케이블(Elmer M. Cable)은 이 현상을 가리켜 ‘교육혁명’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베어드 선교사(William M. Baird)가 설립한 숭실고보(숭실학당)와 제임스 홀 선교사(William James Hall)가 설립한 광성고보(광성학교)를 들 수 있다. 평양고보가 관립이라면 두 학교는 미션스쿨이라는 점에서 건립 성격이 확연히 구별된다.

이들 기독교 학교에서는 성경·영어·물리·화학 등 서양 근대 교과목을 가르쳤다. 이는 당시 한국의 개화 또는 근대화वाद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기독교 학교에서

는 신문화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보급했다. 유능한 지도자뿐 아니라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구실을 한 셈이다.


평양은 서화예술의 전통이 오래 됐고, 근대기 개화 분위기가 가장 고조된 지역 중 하나로 초기 서양화 유학생들을 배출했다. 그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은 1925년 창립된 미술교습소 삭성회(朔星會)로, 서양화 김관호와 김찬영, 동양화 김윤보와 김광식이 강사로 나섰다. 삭성회는 만 2년 수업 기간 동양화부와 서양화부로 나뉘 학생 20명과 30명씩을 모집했다.

그 결과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조선 총독부 주최 ‘조선미술 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이하 조선미전)’는 전국에 산재한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그런데 1927년 제6회 ‘조선미전’에 평양 박인철의 〈풍경〉, 장승엽의 〈교회 가는 길〉, 최세영의 〈습작〉이 서양화부에서 동시에 입선에 오른 것이다. 삭성회 창립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물론 숭실중학교 출신 권명덕은 한 해 앞선 1926년 제5호 조선미전과 제6회 조선미전에서 수채화 〈풍경〉과 유화 〈자화상〉으로 입선했다. 1930년대 평양은 한양 못지 않게 서양화가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는 평양에 신문화에 대한 바람이 컸고 이를 적극 수용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장 서구적이랄 수 있는 서양화가 수백 년 누적된 동양화를 제치고 인기 있는 예술 분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이런 원인에 기인한다.



제18회 조선미전에 입선한 최지원의 목판화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하성도 “WEA 서울총회 개최 반대”

제74차 정기총회, 신임 총회장에 엄하석 목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분별하자
자유민주주의 지킬 대통령 선출
차별금지법 저지와 동성애 반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예하성) 제74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9일(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약 1천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이날 전쟁과 기근, 핵 위협 등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해, 화해와 협력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레 다가온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깊이 침투해 무감각해진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 사회로 드린 개회예배에서 총

회장 김영준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너무 암울하고 답답한 시국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번 총회 주제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로마서 12:2)’,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는다”며 “선후배 목사님들과 동역자님들의 총회를 위한 기도와 사랑, 헌신에 감사드리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백영자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도미니 요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도미니 요 목사는 설교에서 “세계하나님의성회가 크고 놀라운 부흥성장을 이루는 데 조용묵 목사님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축하하면서 이사야 43장 18-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내일(A Great Tomorrow)’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도미니 요 목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과거로부

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선편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훌륭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축사는 아마노 히로마사 목사(일본 하나님의성회 이사장), 전기총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연합회 대표 부산평화교회 임영문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좋은이웃교회 김윤석 목사 등이 전했다.

총회장 김영준 목사는 73차 총회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30년 근속자 23명(이종원, 김상기, 이기성, 김종연, 임웅재, 김기인, 이경진, 박승호, 이득상, 임영신, 장호순, 윤광진, 김경준, 신병설, 박용호, 정영진, 양희철, 김성수, 김영웅, 이진우, 정석현, 정세창, 배영철 목사)에게 근속패를 증정했다. 전국가모연합회를 섬겨온 사모회장 이을순 사모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헌금기도,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헌금송, 서기 장동근 목사의 광고,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의 축도로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예하성

예배가 마무리됐다.

2부 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들과 감사, 예산 심의 등의 회무처리 후 임원 선출에서는 헌법 제84조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 엄하석 목사, 부총회장에 이인호 목사, 총무에 오세준 목사, 서기에 문찬우 목사, 재무에 최정식 목사, 회계에 백영자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 총회장 엄하석 목사(주성교회)는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회원들의 성원과 기도, 협력을 당부했다.

엄하석 목사 인도로 계속된 총회에서는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

의,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적인준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고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다.

이번 제74차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추진 저지와 동성애 반대, 특히 WEA 서울총회 개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집요하게 한국사회에 침투해 오는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미 교육부, 기독교 대학에 부과한 3,770만 달러 벌금 철회

미국 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그랜드 캐년 대학(GCU)에 부과했던 3,770만 달러의 벌금을 철회했다고, 이 대학이 5월 16일(금)에 발표했다.

GCU 뉴스는 교육부 청문 및 항소국이 발행한 공동 기각 명령에서 교육부는 어떠한 조사 결과, 벌금, 책임 또는 처벌도 없이 사건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1949년 남침례교협회에 의해 설립된 GCU는 미국 최대 규모의 기독교 대학이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육부는 2023년 10월 벌금을 발표 하면서, 대학이 박사 과정 비용에 대해 수천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난하며 3,7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교육부는 학교가 웹사이트

에 박사 과정 비용을 40,000달러에서 49,000달러로 광고하여 허위 정보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지만 해당 비용으로 학업을 마친 졸업생은 2% 미만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필수 “연장 과정”으로 인해 최종 비용에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관들은 GCU가 추가 비용에 대해 세세하게 공개한 내용을 “비용에 대한 상당한 허위 진술”에 대한 부적절한 고지로 일축했다.

GCU 총장 브라이언 물러는 이번 결정에 놀라지 않았으며 “우리가 박사과정 학생들을 오도했다는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2023년 CP와의 인터뷰에서 GCU 총장 뮐러(Brian Mueller)는 교육부의 주장에 반박하며, 교육부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이 연방 정부가 기독교 기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러는 기독교 대학인 GCU와 리버티 대학에 부과된 벌금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미식축구팀 수비 코치 제리 샌더스키의 성추행을 보고하지 않은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에 부과된 벌금 240만 달러, 30년간 여자 체조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전 미국 대표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미시간 주립 대학에 부과된 벌금 450만에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벌금 처분 이후, GCU는 연방거래위원회로(FTC)부터 소송을 당했고 재향군인부로부터 재정 감사를 받았으며,애리조나주 연방지방법원은 3월에 FTC가 GCU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FTC가 GCU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 원칙 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는 작년에 교육부 산하 집

행국이 기독교 학교에 가한 조치를 인용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기독교 대학의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법무부 시행국(Office of Enforcement)이 부과하는 벌금의 약 70%를 차지했다.

기독교 학교에 부과된 평균 벌금은 81만 5천 달러였으며, 이는 캠퍼스 범죄에 관한 연방법을 위반한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 부과된 22만 8천 571달러보다 높다.

교육부 대변인 앨런 키스트는 성명을 통해 “이전 행정부와 달리, 우리는 종교적 소속을 이유로 대학을 박해하고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학과 차원의 단속은 정치적 편견이 아닌 학생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주디 한 기자



GCU 총장 뮐러(Brian Mueller), ©GCU.edu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퇴자금 30만불,
집을 페이오프 할까요, 은퇴플랜에 넣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지난 11월에 저희는 남편이 하던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팔고 이제 은퇴를 하였습니다. 은퇴하자마자 한국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서야 은퇴다운 은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67세인데, 당뇨가 심해지고 비즈니스도 더 이상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그냥 더 늦어지기 전에 비즈니스를 팔고 이것 저것 다 하고 나니까 정말 많지도 않은 약 30만불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액을 받기 시작했는데 둘이 합쳐서 3,750불이 나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 모기지 \$1,800을 내면 \$1,900 정도가 되니까 뭐 어쩌서 살면 우리들이 못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 팔고 남은 30만불 정도로 그냥 집을 다 페이오프를 하면 1,800불을 안내고 되니까 그러면 한달에 3,750불이 되면 또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모기지는 2.5% 이자율인데 거의 27만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30만불에서 한달에 2천불씩만 갚아 쓰면서 그것으로 모기지를 내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생활비가 3,750불 정도가 되고, 그럼 남편도 저도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애들에게 집을 남겨 줘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은퇴를 막상 하고 나니

가 또 생활비 계산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가 또 새롭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해져 있는 인컴에서 어떻게 생활비, 지출을 줄일까요?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선생

님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의 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이 유튜브를 보시고 자세한 개별 상담을 꼭 해드리겠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은퇴를 하시면서 금액적으로 충분한 혹은 넉넉한 은퇴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지출을 줄이거나 둘째 인컴을 늘리거나 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출을 줄이는데 더 집중을 하시는데 만약 인컴을 늘리는 방법으로 똑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은퇴 인컴이 더 나온다면 어떨까요?

지금 선생님의 모기지 금액은 한달에 1,800불이고, 이자율이 2.5%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5% 이자를 안내기 위해서 물론 그 남은 모기지 전체 27만불을 한 번에 다 갚을 수도 있지만, 만약 27만불을 가지고 7% 이상의 이자를 받아 쓰신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1,800불이란 모기지를 페이하면서 천천히 집은 페이오프를 하시고, 나머지 더 큰 이자로 남은 돈으로 인컴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예입니다.

선생님께서 비즈니스 팔고 남은 돈 30만불을 만약 어뉴이티에 넣고 고정 인컴으로 받아 쓰시게 된다면 매년 \$25,857불이 100개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만불을 넣고 평생 살아 쓰는 돈은 827,412불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의 인컴은 소셜인컴 3,750불에 어뉴이티에서 나오는 \$2,154,75가 더해져서 한달 인컴은 5,904,75달러가 되고, 모기지 1,800불을 매달 낸다고 해도 인컴이 오히려 4104,75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천불 가까이 인컴에서 모기지를 내도 선생님들의 은퇴가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쓰게 되기 때문에 모기지를 갚아 나간다고 해도 더 큰 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고, 또 고정 인컴 어뉴이티는 선생님께서 통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달에 꼬박꼬박 2,154,75센트가 들어간 30만불이라는 원금을 다 찾아 쓰기 전에는 자동으로 두 배인 4,309,50센트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도 은퇴 플랜으로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빛은 다 갚아 버리고 싶고, 지출은 줄여야 겠다

부동산과 어뉴이티

알찬 노후를 위한 실버 전략 세미나

“은퇴 부동산과 은퇴 어뉴이티”

5/28 (수), 5:30pm

3435 WILSHIRE BLVD., 14층, LA

- 부동산 저널리스트 주의사항
- 시니어 타운 구매전략
- 은퇴 플랜과 롱텀케어
- 어뉴이티를 통한 평생 인컴

자리가 한정되어있으니 꼭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NEOZIP 626-827-9599

SYMOMONEYTALK@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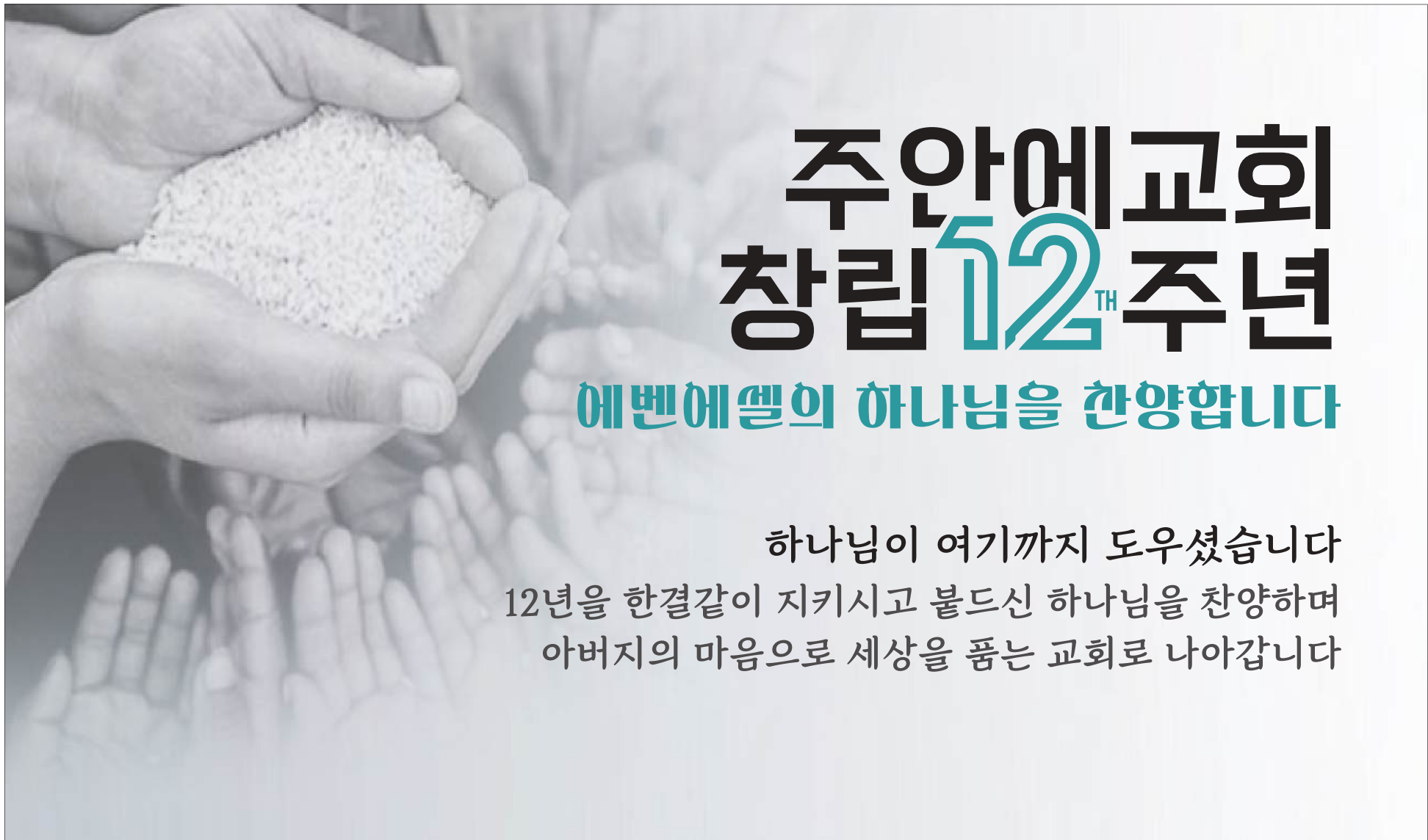
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지만, 정말 이자 셈을 계산하고 통틀어 비교해서 상황에서 도 혜택까지도 볼 수 있는 플랜을 생각하시면 집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 하는 방법의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담을 꼭 하시고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 자금 30만불을 모기지를 전부 페이오프 하여 지출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2.5% 모기지론 이자보다 훨씬 많은 7% 정도의 이자를 받아 은퇴인컴을 더 높이고 롱텀케어까지도 준비할 것인지,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주안에교회 창립 12TH주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12년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장 1절)



FR/5.30.2025
7:45pm

SA/5.31.2025
6:00am&8:00am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SU/6.01.2025
8:00am&11:00am



김일권 선교사
OM 한민국제선교회 대표
한국 OM 선교훈련원 원장
미주 장신대 선교학 교수
중동선교사 (17년)



이충환 담임목사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818) 363-5887
www.icccla.org